

<같이 또 함께>

꼬꼬마 시절 저에게는 두가지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림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추리 소설과 탐정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놀이터 바닥에 끄적이며 시작된 '그림'은 '나'와 '세계'와의 소통을 위한 '언어'였고 사건의 조각을 쫓아 하나 하나 퍼즐을 맞춰가다 결국 범인을 찾아내고야 마는 추리 소설과 탐정 애니메이션은 '해결'의 쾌감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림이라는 언어를 쫓아 학교를 진학하였고 전공에 따라 당연스럽게 편집 디자인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업무의 낯섬과 내 손으로 뭔가를 창조하는 기쁨에 2년여의 시간이 흐를 즈음 낯섬은 익숙함으로 창조의 기쁨은 반복되는 매너리즘이 되어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늦은 퇴근길에 우연히 접한 '웹 퍼블리셔'라는 직업에 대해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카페, 블로그, 유튜브의 여러 정보들을 접할수록 처음 호기심으로 시작한 탐색은 '해야겠다.'는 다짐이 되었습니다. 곧바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고 공부를 시작하였지만 이번엔 업무의 낯섬이 아닌 방향의 낯섬이 나아감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제대로 하자.' 알음알음 개인 과외를 시작하였습니다.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만 다뤄본 저에게 처음 접한 HTML, CSS로 시작하는언어들의 문법은 너무도 어려웠고 계속되는 문제들이 제 앞을 가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과정들이 웹 퍼블리셔라는 직업에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들고 웹 퍼블리셔란 직업에 발을 들였습니다. '내가 배우고 익힌 코드가 실무에서 완벽히 적용이 될까?', '내가 한 사람의 퍼블리셔로서의 몫을 해낼 수 있을까?' 새로움의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도 앞섰습니다.

그러나 처음 맡은 간단한 수정 작업 이후 하나 하나 완성해가며 쌓이는 페이지만큼 점점 자신감도 붙었습니다. 자신감과 더불어 실력이 늘어남이 느껴진 입사 3개월 즈음부터는 한 페이지 이상을 도맡아 작업하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퍼블리싱을 즐기며 1년이 흐른 어느 날, 퍼블리싱을 하면 할수록 드는 자바스크립트와 프레임의 워크의 중요성, 그리고 좀 더 핵심으로 다가가고픈 갈증에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자바스크립트 강의를 듣고 이어 리액트와 뷰의 강의를 들으며 다시 찾아온 방향의 낯섬. 이번엔 주저하지 않고 스터디와 개인 과외를 찾아 공부의 밀도를 높여나갔습니다. 리액트를 공부하며 오히려 자바스크립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어 다시 처음으로의 반복, 예제를 충분히 익히고 리액트로 구조를 짜고 페이지를 하나 하나 완성하고... 일련의 과정들은 쉽지 않았지만 그렇게 완성되어가는 페이지는 '내가 이걸 했다고?'의 신기함과 '낯섬과 익숙함의 영역일 뿐 어차피 사람이 하는 일이니 나 또한 충분하다'는 자신감이 되었습니다. 처음은 누구나 어려움을 인정하고 언어란 반복임을 알기에 그냥 한발 한발 걸었습니다. 그렇게 자바스크립트라는 새로운 언어의 낯섬의 영역에서 익숙함의 영역으로 발을 내딛으며 mongo DB와 firebase 구조와 데이터 과정의 이해 또한 필요함을 느껴 스터디를 찾아 협업하며 게시판 수정, 삭제, 추가 기능을 구현하며 익혀보았습니다. 이후 다른 스터디에서는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며 리액트 라이브러리인 Next.js로 Netflix를 클론코딩 해보았습니다. 이런저런 오류들이 있었지만 스터디원들과 더불어 최신 버전이라는 13버전으로 구현해 기존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었고 좀 더 완성도 있는 페이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컴퓨터'이든 '사람'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년기로부터 이어진 일련의 경험을 통해 소통을 위해서는 상대의 '언어'를 익힘은 물론 상대의 니즈를 파악하는 '통찰력' 또한 필요함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업무를 위한 도구로서의 '언어'와 클라이언트 및 팀과의 협업을 위한 목적으로써의 '언어'의 중요성을 알고 앞으로 만날 수많은 퍼즐을 해결하기 위한 '통찰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상대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소통하며 조직 내 혼자가 아닌 조직과 더불어 성장하겠습니다. 이전 디자인에서의 노하우와 새롭게 익힌 코딩 능력을 접목시켜 클라이언트의 요구에 최적화된 사이트를 구현코자 합니다. 겸손과 배움의 자세를 잃지 않고 항상 최선을 다해 '신뢰'받을 수 있는, '실력'을 인정받는 '나'를 만들어 '조직'의 튼튼한 뼈대가 되겠습니다.